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 비교

김두영¹, 강영실^{2*}

¹경상대학교 간호대학, ²경상대학교 간호대학 / 경상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

A Comparison of Education Needs between Mothers and Grandmothers for Toddlers in Child-Rearing

Doo-Young Kim¹, Young-Sil Kang^{2*}

¹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유아(만 12~36개월)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를 비교하여, 양육자 간의 양육 태도 불일치로 인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유아를 양육하는 할머니 201명, 어머니 201명이며, 자료 수집은 경남 C시 어린이집 11곳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를 비교한 결과, 전체 교육요구 점수는 4점 만점에 어머니 2.82±0.58점, 할머니 2.81±0.63점이었고, 5개 전체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21$, $p=.836$). 양육 교육요구는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 영역이 가장 높았고, 신체 돌보기 영역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아 양육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요구가 높았던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여 개발하고,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parenting education needs of mothers and grandmothers who are rearing toddlers (12~36 months old), in order to examine how to resolve conflicts and problems caused by inconsistencies in the parenting attitudes of these caregivers. The findings will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consistent parenting education program.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01 mothers and 201 grandmothers who were all rearing toddlers. Data was collected at 11 daycare center in C city, Gyeongsangnamdo from August 1, 2017 to October 12, 2017.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independent t-test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arenting education needs of mothers and grandmothers, the overall evaluation of education needs was rated as 2.82±0.58 for mothers and 2.81±0.63 for grandmothers on a scale of 4,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five domains ($t=0.21$, $p=.836$). The highest education needs were found i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 and injury, and the lowest was in the physical car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toddler parenting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after selecting contents focusing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 and injury domain where education needs are high. We propose a study to examine the effects of applying such a program to both mothers and grandmothers who are rearing toddlers.

Keywords : Parenting Education Needs, Toddler, Mother, Grandmother, Consistency

*Corresponding Author : Young-Sil Kang(K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Kangys@gnu.ac.kr

Received February 14, 2020

Revised March 31, 2020

Accepted May 8, 2020

Published May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우리사회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육아정책연구소[1]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의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는 가정의 비율(보육기관 병행)은 2009년 23.2%에서 2012년 35.8%, 2015년에는 65.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로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은 ‘조건없는 사랑’을 주면서 정신적 힐링을 하기도 하지만, 급격한 시대의 변화로 인한 세대차이와 본인의 역할에 한계선을 가지고 있는 ‘제한된 역할의 양육자’라는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고 있다[2]. 양육자 간에 양육에 대한 원치 않는 조언이나 간섭, 양육에 대한 자녀세대와의 시각 차이는 심리적 갈등관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3].

양육자의 부정적인 감정과 양육자 간의 갈등은 가족 간의 내적 긴장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4]. 유아 양육에 있어 양육자간의 양육태도 불일치와 갈등은 유아의 심리상태를 위축시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심리상태가 사회적 불안감, 대인관계에서 위축감과 심리적 우울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5,6].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일관된 양육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한 철학과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양육교육이 필요하다[7].

우리나라의 양육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양육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적으로 시행되는 강의형태가 많다[8].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했던 과거와는 다른 시대상황의 요구들로 인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2],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를 위한 양육교육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해볼 때, 선행 연구들의 연구 대상자는 유아의 어머니[9-11]에 편중되어 있고, 연구 주제는 양육 스트레스/긴장/부담감[12,13], 양육자신감/효능감[14,15], 양육태도/행동[16,17]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주로 유아학[18,19]과 유아교육학[20,21]에서 시행되었고, 할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교육요구를 연구하였거나,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함께 양육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의 차이를 비교하여, 양육자에 따른 양육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만 12개월~36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를 파악하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유아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를 파악한다.
- 2) 유아 양육에 대한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를 파악한다.
- 3)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를 파악하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남 C시 어린이집 11곳에 재원하는 유아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independent t-test에서 통계적 검정력(1-β) .80, 유의수준(α) .05으로 설정하고, 효과크기는 본 연구와 종속변수가 같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건강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한 선행연구[22]에서 효과크기(d) .25를 한 것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d) .3로 설정하였다.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표본수는 양측검정에서 어머니 176명, 할머니 176명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가 한 가정의 어머니와 할머니인 두 군이 함께 설문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탈락율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탈락율을 20%로 설정하였다. 이에 어머니 설문지 235부와 할머니 설문지 235부를 배부하였고, 어머니 설문지 201부, 할머니 설문지 201부가 수거되어 총 40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양육 교육요구

본 연구에서 양육 교육요구는 본 연구자가 5개 영역, 61개 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개발을 위해 Sim[23]이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요구를 조사한 연구에서 도출된 6개의 영역(성장발달, 신체돌보기, 영양과 식습관 관리, 질병과 사고 예방 및 관리, 훈육 및 교육, 기타)과 선행연구[18] 및 아동건강간호학 교과서[24]를 근거로, 영아에 해당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유아 양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목록을 선정하고,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양육 교육요구의 하위영역은 성장과 발달(7문항), 신체 돌보기(10문항), 영양과 식습관 관리(10문항),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17문항), 훈육과 교육(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작성된 도구는 아동간호학 교수 2인, 아동간호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인에게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도구의 문항별 내용타당도는 0.83~1.0이었다.

양육 교육요구의 문항별 점수는 '매우 필요' 4, '약간 필요' 3, '별로 필요하지 않음' 2,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교육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 α 는 어머니 .98, 할머니 .98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G대학교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GIRB-A17-Y-0027).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2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은 G도 C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11곳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어린이집의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승인한 어린이집 기관장에게 설문지를 보냈다. 어린이집 기관장이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선별하였다.

대상자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12개월-36개월 유아의 어머니와 할머니로서, 할머니가 만 12개월-36개월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어린이집 기관장이 대상으로 선별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명단을 연구자가 전달받았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를 동의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전화로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은 뒤,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서면 동의서와 설문지를 해당 유아의 보육 가방에 넣어 가정으로 발송하였다. 설문지 배부에 강제성을 가지지 않도록 어머니와 할머니가 설문지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거하였으며, 한 가정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연구대상자에 함께 포함시켰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요구가 할머니의 교육요구에 반영되지 않도록, 연구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을 때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줄 수는 있으나, 할머니가 설문 작성시 문항을 어머니와 의논하거나, 어머니가 할머니의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지 않도록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어머니와 할머니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 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3.1.1 어머니의 특성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6세로, 30대가 173명(86.0%)으로 가장 많았다. 181명(90.0%)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188명(93.5%)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126명(62.7%)이었으며, '주관적 경제상태'는 '중'이상이 185명(92.0%)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146명(72.6%)이 '있음'이라고 답하였다(Table 1).

'양육 교육 경험'에 대해서 114명(56.7%)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자녀 양육의 정보 출처(다중 응답)'로는 '인터넷' 136명(67.7%), '서적' 130명(64.7%), '부모형제나 친구' 123명(61.2%), '대중매체' 90명(44.8%), '자녀육아 교육기관' 79명(39.3%), '전문가' 64명(31.8%) 순이었다. 대리 양육 사유로는 '맞벌이'가 136명(67.7%)으로 가장 많았다. 할머니를 대리 양육자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불안해서'가 188명(92.8%)이었다(Table 1).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N=402)

Characteristics	Category	Mother	Grandmother
		N(%)	N(%)
Age (year)	≤29	20(10.0)	-
	30~39	173(86.0)	-
	40~49	8(4.0)	-
	50~59	-	82(40.8)
	60~69	-	111(55.2)
	≥70	-	8(4.0)
Spouse cohabitation	Yes	181(90.0)	137(68.2)
	No	20(10.0)	64(31.8)
Education	uneducated	-	8(4.0)
	Elementary school	-	32(15.9)
	Middle school	-	46(22.9)
	High school	13(6.5)	99(49.2)
	≥college	188(93.5)	16(8.0)
Religion	Yes	75(37.3)	131(65.2)
	No	126(62.7)	70(34.8)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18(9.0)	25(12.4)
	Middle	167(83.0)	168(83.6)
	Low	16(8.0)	8(4.0)
Job status	Yes	146(72.6)	45(22.4)
	No	55(27.4)	156(77.6)
Granddaughter parenting experience	Yes	-	77(38.3)
	No	-	124(61.7)
Parenting education experience	Yes	114(56.7)	15(7.5)
	No	87(43.3)	186(92.5)
Child Custody Sources (Duplicate response)	Expert	64(31.8)	34(16.9)
	Family and friends	123(61.2)	129(64.2)
	Mass media	90(44.8)	94(46.8)
	Books	130(64.7)	18(9.0)
	Internet	136(67.7)	18(9.0)
	Lecture	44(21.9)	11(5.5)
	Education agency	79(39.3)	31(15.4)
	Other	1(0.5)	22(10.9)
The reason for rearing	Double income	136(67.7)	-
	multiple children	13(6.5)	-
	Young child	30(14.9)	-
	Other	22(10.9)	-
Why chose grandmother as a parent	Others are anxious	188(93.5)	-
	Excessive cost	6(3.0)	-
	Other	7(3.5)	-

3.1.2 할머니의 특성

할머니의 평균 연령은 60.9세로, 60대 111명(55.2%), 50대 82명(40.8%) 이었으며, 137명(68.2%)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99명(49.3%), 중졸 46명(22.9%), 초졸 32명(15.9%), 대졸 이상 16명(8.0%) 순이었고, 무학이 8명(4.0%)으로 가장 적

었다. 131명(65.2%)이 종교가 있었으며, '주관적 경제상태'는 '중 이상'이 193명(96.0%)이었다. '직업'은 45명(22.4%)이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124명(61.7%)이 손자녀 양육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양육 교육 경험 유무'에 대해 15명(7.5%)이 있다고 답하였다. '자녀 양육의 정보 출처(다중 응답)'로는 '부모 형제나 친구' 129명(64.2%), '대중매체' 94명(46.8%), '전문가 34명'(16.9%), '자녀육아 교육기관' 31명(15.4%), '기타' 22명(10.9%)로 순이었으며, '기타'란에 '경험'이라고 답한 사람이 15명이었다(Table 1).

3.2 양육 교육요구 비교

3.2.1 성장과 발달

성장과 발달 영역에서 어머니는 성격발달 문항이 3.14±0.80점으로 가장 교육요구가 높았고, 할머니는 성격발달 3.07±0.76점, 정서발달 3.07±0.77점으로 가장 교육요구가 높았다. 모든 성장과 발달 문항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과 발달의 전체 영역 점수는 어머니 2.97±0.69점, 할머니 2.96±0.70점(t=-0.19, p=.846)이었다(Table 2).

Table 2. Education Needs for Growth and development (N=402)

Item	Mother	Grandmother	t(p)
	M±SD	M±SD	
Physical development	2.84±0.77	2.88±0.81	-0.51 (.614)
Cognitive ability (Intelligence) development	3.05±0.76	2.99±0.78	0.78 (.438)
Language development	2.93±0.82	2.93±0.82	-0.06 (.951)
Sociality development	3.04±0.81	2.97±0.81	0.86 (.388)
Emotional development	3.13±0.79	3.07±0.77	0.77 (.441)
Exercise development	2.65±0.89	2.78±0.83	-1.45 (.148)
Personality development	3.14±0.80	3.07±0.76	0.96 (.339)
Total	2.97±0.69	2.96±0.70	0.19 (.846)

3.2.2 신체 돌보기

신체 돌보기 영역에서 건강한 치아관리 문항이 어머니 2.92±0.85점, 할머니 2.83±0.91점으로 가장 교육요구가 높았다. 신체 돌보기의 모든 문항에서 어머니와 할머

니의 양육 교육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체 돌보기의 전체 영역 점수는 어머니 2.53±0.69점, 할머니 2.51±0.76점(t=0.24, p=.810)이었다(Table 3).

Table 3. Education Needs for Physical caring (N=402)

Item	Mother M±SD	Grandmother M±SD	t(p)
How to take a bath	2.25±0.87	2.32±0.88	-0.85 (.394)
Sleep habit management	2.59±0.88	2.50±0.87	1.03 (.304)
Sleep environment management	2.55±0.89	2.47±0.88	0.90 (.367)
Skin care	2.50±0.91	2.56±0.88	-0.61 (.541)
Hair care	2.29±0.85	2.29±0.83	0.00 (1.000)
Dressing	2.25±2.75	2.39±2.61	-1.59 (.112)
Teethging care	2.83±0.82	2.67±0.90	1.86 (.064)
Healthy teeth care	2.92±0.85	2.83±0.91	0.97 (.334)
Hygienic Environment and Temperature Management	2.61±0.85	2.65±0.90	-0.46 (.649)
Earwax Management	2.53±0.82	2.47±0.91	0.75 (.455)
Total	2.53±0.69	2.51±0.76	0.24 (.810)

3.2.3 영양과 식습관 관리

영양과 식습관 관리 영역에서는 올바른 식습관 관리 문항이 어머니 3.10±0.83점, 할머니 2.99±0.82점으로 교육요구가 가장 높았다. 영양과 식습관 관리의 모든 문항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양과 식습관 관리의 전체 영역 점수는 어머니 2.57±0.76점, 할머니 2.57±0.78점(t=-0.07, p=.943)이었다(Table 4).

Table 4. Education Needs for Nutrition and diet management (N=402)

Item	Mother M±SD	Grandmother M±SD	t(p)
Breast Feeding Method	2.10±1.03	2.16±0.98	-0.55 (.585)
Baby food type	2.30±1.08	2.33±1.02	-0.33 (.739)
Baby food recipes	2.37±1.07	2.44±1.04	-0.66 (.509)
Feeding baby food	2.24±1.03	2.36±1.05	-1.10 (.272)
Weaning	2.04±1.03	2.14±0.97	-0.94 (.346)

Nutrition management	2.90±0.91	2.79±0.92	1.14 (.254)
Food grumbling management	3.03±0.86	2.88±0.85	1.87 (.063)
Unbalanced diet management	3.08±0.86	2.94±0.85	1.69 (.092)
Overeating management	2.57±0.90	2.67±0.95	-1.13 (.259)
Proper eating habit management	3.10±0.83	2.99±0.82	1.45 (.147)
Total	2.57±0.76	2.57±0.78	0.07 (.943)

3.2.4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 영역에서 어머니는 이물질 흡입 및 섭취 시 응급대처 문항과 교통사고 시 응급대처 문항이 각 3.29±0.75점으로 가장 교육요구가 많았다. 할머니는 이물질 흡입 및 섭취 시 응급대처 문항이

Table 5. Education Need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 and injury (N=402)

Item	Mother M±SD	Grandmother M±SD	t(p)
Vaccination management	2.77±0.88	2.93±0.88	-1.87 (.062)
Cold prevention	2.88±0.79	2.90±0.81	-0.25 (.804)
Seizure prevention	2.98±0.83	3.04±0.83	-0.78 (.434)
Car accident prevention	3.02±0.78	3.13±0.80	-1.32 (.187)
Constipation management	2.85±0.77	2.96±0.81	-1.39 (.167)
Diarrhea management	2.88±0.78	2.95±0.83	-0.87 (.388)
Fever management	3.01±0.80	3.10±0.83	-1.16 (.247)
Cold symptom management	2.97±0.80	3.00±0.79	-0.44 (.661)
convulsions Management	3.10±0.83	3.16±0.80	-0.73 (.465)
vomiting Management	3.07±0.77	3.13±0.77	-0.78 (.438)
Skin abnormality management	3.02±0.76	3.06±0.79	-0.45 (.653)
Identify abnormal symptoms	3.02±0.80	3.10±0.79	-0.94 (.349)
Emergent manage for burn	3.24±0.77	3.30±0.76	-0.79 (.432)
Emergent manage for foreign body ingestion or aspiration	3.29±0.75	3.34±0.72	-0.75 (.456)
Emergent manage for fall down	3.26±0.77	3.31±0.73	-0.60 (.551)
Emergent manage for traffic accident	3.29±0.75	3.29±0.75	0.07 (.947)
Safe environment management	3.14±0.78	3.14±0.79	0.00 (1.000)
Total	3.05±0.66	3.11±0.67	-0.93 (.355)

3.34±0.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의 모든 문항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 요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의 전체 영역 점수는 어머니 3.05±0.66점, 할머니 3.11±0.67점($t=-0.93, p=.355$)이었다(Table 5).

3.2.5 훈육과 교육

훈육과 교육 영역에서 어머니는 올바른 버릇 길들이는 방법 문항이 3.27±0.75점으로 가장 교육요구가 높았다. 할머니는 올바른 버릇 길들이는 방법 문항이 3.09±0.80점으로 가장 교육요구가 많았다. 훈육과 교육 하위 문항에서 '대소변 가리기($t=2.04, p=.043$)', '떼쓰기 대처법($t=3.22, p=.001$)', '올바른 버릇 길들이기($t=2.31, p=.02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14가지 영

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훈육과 교육의 전체 영역 점수는 어머니 3.00±0.64, 할머니 2.91±0.67점($t=1.33, p=.183$)이었다(Table 6).

4. 논의

본 연구는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여, 양육자간의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와 행동을 위한 양육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양육 교육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머니는 114명(56.7%), 할머니는 15명(7.5%)에서 '있다'고 답하여, 어머니에 비해 할머니에게는 적절한 양육 교육이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 양육의 정보 출처(다중 응답)'에서 어머니는 인터넷 136명(67.7%), 서적 130명(64.7%), 부모 형제나 친구123명(61.2%), 대중매체 90명(44.8%), 자녀육아 교육기관 79명(39.3%), 전문가 64명(31.8%) 등 정보의 출처가 다양했다. 반면 할머니는 부모형제나 친구 129명(64.2%), 대중매체 94명(46.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를 체크한 할머니 22명(10.9%) 중 15명이 '경험'이라고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육 정보의 출처가 제한적이고 비전문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손자녀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과 부모참여수업은 거의 부모들을 위한 것이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이 손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많지만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성인 자녀에게 물어보거나 예전의 경험으로 양육하고 있었다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2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센터나 어린이집이나 공기관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에 대한 영역별 교육요구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Jang과 Cho[26]의 연구에서 어머니는 현재의 육아 및 양육행동은 할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영향을 받았고, 지금의 할머니는 전통육아방식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새로운 양육방식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Han, Kwon과 Lee[27]의 연구에서도 37가지의 전통 육아방

Table 6. Education Needs for Discipline and teaching (N=402)

Item	Mother M±SD	Grandmother M±SD	t(p)
Toilet covering	2.75±0.92	2.57±0.90	2.04 (.043)
Manage Grizzling	3.25±0.73	3.00±0.79	3.22 (.001)
Attack behavior management	3.14±0.76	3.01±0.81	1.71 (.089)
manage the separation anxiety	3.01±0.84	2.96±0.84	0.71 (.478)
Right way watching the media	3.03±0.81	3.00±0.83	0.37 (.715)
How to tame the right habit	3.27±0.75	3.09±0.80	2.31 (.021)
Improve physical development	2.99±0.80	2.90±0.82	1.05 (.296)
Improve cognitive development	3.05±0.80	2.95±0.79	1.38 (.170)
Improve language development	3.04±0.78	2.97±0.81	0.88 (.381)
Improve sociality development	3.10±0.80	2.98±0.82	1.60 (.110)
Improve Emotional development	3.11±0.79	2.98±0.83	1.66 (.097)
Improve exercise development	2.95±0.81	2.90±0.83	0.61 (.544)
Improve personality development	3.12±0.78	2.97±0.80	1.96 (.051)
Manage the oral desire	2.74±0.98	2.79±0.93	-0.57 (.567)
Monthly play and fun	2.92±0.80	2.90±0.80	0.19 (.852)
Early education method	2.77±0.88	2.76±0.87	0.06 (.955)
Send daycare and kindergarten	2.68±0.91	2.72±0.90	-0.50 (.620)
Total	3.00±0.64	2.91±0.67	0.21 (.836)

식 중 절반정도를 젊은 세대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 육아방식이 현대에 상당 부분 전이되어 잔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통 육아방식과 현대의 서구적인 육아방식이 어머니와 할머니 서로에게 비슷한 양상으로 혼재되어 있어,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아 양육에 있어 교육요구가 높은 영역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성장과 발달 영역은 성격 발달(어머니 3.14±0.80, 할머니 3.07±0.76), 정서발달(어머니 3.13±0.79, 할머니 3.07±0.77)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다. 이는 정서발달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던 선행연구[9,21]에서 부모 모두 유아의 사회정서 지도방법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폭력, 왕따 등의 문제점이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성격발달과 정서발달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유아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므로[21], 성격·정서발달과 함께 모든 문항에 있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유아 양육의 기초이므로[24], 성장과 발달 전 영역에 걸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아 양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할머니의 관심과 교육요구가 부족한 문항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돌보기 영역에서는 건강한 치아관리(어머니 2.92±0.85, 할머니 2.83±0.91)에 대한 교육요구가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 가장 높았다. 이 시기의 구강관리에 소홀해지면 영구치에도 평생 영향을 미치게 된다[28]. 따라서 양육자의 이러한 관심은 유아의 유치를 관리하는데 바람직하다.

셋째, 영양과 식습관 관리 영역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 올바른 식습관 관리(어머니 3.10±0.83점, 할머니 2.99±0.82점)에 대한 교육요구가 가장 높았다. 유아기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 특별한 조리방법의 선호, 특정 식품 및 식품군 섭취 거부, 소량 섭취 등의 까다로운 식습관이 나타나는 시기로, 잘못된 식습관은 유아기 성장정체와 성장 불균형의 결과를 가져온다[29]. 이로 인해 올바른 식이와 식습관을 길러주어야 하는 유아기 유아의 어머니들이 식습관 관리에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 Pyun과 Lee[30]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들은 양육자가 선택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게 어머니의 식습관을 따라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양육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시 시간에 쫓기는 취업모를 위해 유아의 기호에 맞는 영양식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반찬 레시피, 간단한 유아 요리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 영역(어머니 3.05±0.66, 할머니 3.11±0.67)은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에서 교육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9,14,23]에서 질병, 안전사고, 건강증진과 관련된 문항에서 높은 교육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동일하다. 취업모가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자녀가 아플 때이며[25], Sim과 Seo[31]의 연구에서도 조부모의 손자녀 돌보기의 중점영역에서 '건강'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는 양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유아의 질병과 건강관리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발달과정과 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유아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상으로 유아 양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 영역의 문항 중 '화상시 응급대처(어머니 3.24±0.77, 할머니 3.30±0.76)', '이물질 흡입 및 섭취시 응급대처(어머니 3.29±0.75, 할머니 3.34±0.72)', '낙상시 응급대처(어머니 3.26±0.77, 할머니 3.31±0.73)', '교통사고 시 응급대처(어머니 3.29±0.75, 할머니 3.29±0.75)' 등 '응급대처'의 모든 문항에서

교육요구가 높았다. 또한 해당 영역의 다른 문항들의 교육요구가 평균 3점(4점 만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교육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나 할머니같은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보육교사 대상의 연구[32]에서 교사들의 응급처치 지식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점수는 교사들의 연령, 경력 및 최종 학력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만 응급처치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이 꼭 필요하며, 교육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93.9%가 참여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유아의 응급대처에 대한 교육은 주양육자를 포함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할머니 대상의 응급대처에 대한 교육내용 구성시 실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상, 이물질 흡입, 낙상, 교통사고를 주 내용으로 하여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훈육과 교육 영역의 문항 중 '대소변 가리기 ($t=2.04, p=.043$)', '떼쓰기 대처법($t=3.22, p=.001$)', '올바른 버릇 길들이기($t=2.31, p=.021$)'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모든 영역과 영역별 하위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소변가리기 성취도 및 어머니의 대소변 가리기 지식에 관한 선행연구[33]에서 비취업모의 유아가 취업모 유아보다 대소변 가리기 성취도가 높았으며, 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의 대소변 가리기 지식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어머니 대상자 중 직장에 다니고 있는 어머니가 72.6%인 것을 감안할 때, 이미 과거에 자녀를 양육한 할머니 세대보다 대소변 가리기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여 교육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소변 가리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양육자의 과거 경험이나 유아에게 할애하는 상대적인 양육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기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로[2]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을 익히기가 쉽지 않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이 시기에 형성된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으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성격 및 습관의 형성은 중요하다. Kim, Song과 Lee[25]에서 버릇 및 습관 형성에 있어 할머니에게 양육을 맡기는 어머니는 할머니가 유아의 떼쓰기를 너무 받아주어 유아의 버릇이 나빠질까 걱정이 된다하였다. 반면에 할머니는 손자녀의 양육에 있어 온정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중시하고, 어머니에 비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버릇 및 습관 형성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어머니와 할머니의 태도 차이를 고려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일관적인 양육태도와 행동을 지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육 기관에서 (조)부모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구분하여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머니와 할머니의 세대차이로 인한 단어의 선택이나 이해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해 수준을 잘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교육 요구를 잘 반영하고 동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내용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만 12~36개월)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를 파악하고 차이를 비교하여, 양육자 세대간의 세대차이와 지식차이 및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양육자간의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와 행동을 위한 양육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는 두 군 모두에서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 영역에서 교육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5개 전체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 교육요구는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아 양육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요구가 높았던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여 개발하고,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양육 교육요구에 대한 대상자를 어머니를 비롯하여 할머니까지 확대한 것과 양육자간의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와 행동의 지침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어머니와 할머니 두 군에서 가장 교육요구가 높았던 질병과 사고예방 및 관리 영역의 지침을 개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유아의 성장발달과 건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아동 전문간호사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지역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여러 지역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Lee YJ, Kwon MK, Kim SJ, "A Study of the Parenting Status and Support Plan for Grandparent, Interview repor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pp.83-121, 2015.
- [2] Ahn JR, "The Study of Grandmothers' Role Recognition in Raising their Young Childhood Grandchildre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8, No.2, pp125-136, 2016.
- [3] C.C.Goodman, "Intergenerational triad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Journal of Gerontology*, Vol.58B, No.5, pp.281-289, 2003.

- DOI: <https://doi.org/10.1093/geronb/58.5.S281>
- [4] C. Russel, "Transition to parenthood : Problems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36, pp.294-302, 1974.
DOI: <https://doi.org/10.2307/351155>
- [5] Shaw DS, Vondra JI, Hommerding KD, Keenan K, Dunn M, "Chronic family adversity and early child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of low income families." *J Child Psychol Psychiatry*. Vol.35, No.6, pp.1109-22, Sep. 1994.
DOI: <https://doi.org/10.1111/j.1469-7610.1994.tb01812.x>
- [6] Shaw DS, Winslow EB, Owens EB, Hood N,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chronic family adversity: a longitudinal study of low-income familie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Vol.37, No.5, pp.545-53, May 1998.
DOI: <https://doi.org/10.1097/00004583-199805000-00017>
- [7] Lee SH, Lee MK, "Analysis of thesis on parent education in korea - focused on the trend of studies on parent education since 1970-",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 No.1, pp.107-133, 2004.
- [8] Ko GP,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Early Childhood Par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4, pp.433-459, 2017.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7.17.24.433>
- [9] Yoo KH, "The Educational Needs of a Mother when Nurturi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0, No.4, pp.905-916, 2000.
DOI: <https://doi.org/10.4040/jkan.2000.30.4.905>
- [10] Kim MY, Park DY,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Verbal Abuse of Infant's Mother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15, No.4, pp.375-382, Oct. 2009.
DOI: <https://doi.org/10.4094/jkachn.2009.15.4.375>
- [11] Park JY, Bang KS, "Knowledge and Needs of Premature Infant Development and Rearing for Mothers with Premature Infants", *Korean Parent Child Health J*, Vol.16, No.1, pp.17-26, Dec. 2013.
- [12] Kim NH, Lee EJ, Kwak SY, Park MR,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Burden of Working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19, No.3, pp.188-200, Sep. 2013.
DOI: <https://doi.org/10.4069/kjwhn.2013.19.3.188>
- [13] Jung, WJ, Yi M, "Influence of Perceived Health,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Grandparent Caregivers", *Korean J Adult Nurs*, Vol.26, No.3, pp.310-319, June. 2014.
DOI: <https://doi.org/10.7475/kjan.2014.26.3.310>
- [14] Park HJ, Jung HM, "The Temperament of Grandmothers and Grandchildren Grand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Vol.14, No.1, pp.1-11, 2010.
DOI: <https://doi.org/10.21896/jksmch.2010.14.1.1>
- [15] Choi HS, Shin YH, "Effects on Maternal Attachment,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Confidence of Systematic Information for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Child Health Nurs Res*, Vol.19, No.3, pp.207-215, July 2013.
DOI: <https://doi.org/10.4094/chnr.2013.19.3.207>
- [16] Oh JW, Moon YS, Park IS, "A Study of nurses' working stress, child-rear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1, No.10, pp.469-481, 2013.
DOI: <https://doi.org/10.14400/JDPM.2013.11.10.469>
- [17] Yu KZ, "Parenting Stress, Job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in Nurse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9, No.2, pp.5-21, 2013.
- [18] Chung MJ, Eo JK, Kim HG, "Need Assessment of Kindergarten Mother for Parent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30, No.1, pp.267-282, 1992.
- [19] Chung MJ, Eo JK, "Need Assessment of Mothers and Teachers for Parent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0, No.3, pp.23-47, 2000.
- [20] Jin YH, *A Study on the Parental Education Needs of Mothers of Middle and Low-Income Infa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25-40, 2000.
- [21] Jeong MA, *Analysis on the Needs of Par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of Child-Rearing between Fathers and Mothers of Early Childhoo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pp.43-61, 2010.
- [22] Kim SJ, Lee JM, Min HY, "A Survey of Smartphone-Based Health Education Needs for Par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2, No.4, pp.346-354, 2016.
DOI: <https://doi.org/10.4094/chnr.2016.22.4.346>
- [23] Sim YS, *Educational needs of an infant or toddler's mother for child-caring experience*,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p.17-85, 1998.
- [24] Kim MA, Kwon IS, Kim SO, Kim EK, Kim EY, Wong's nursing care of infants & children, SOOMOONSA, pp.412-440, 2015.
- [25] Kim MO, Song SM, Lee SR,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hild-rearing Experience and Conflict of Grandmothers in Dual-income Families: from the Grandmother's and Working Moms' Point of View",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11, No.4, pp.239-269, 2015.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5.11.239>
- [26] Jang HJ, Cho BH, "The Nursing Behavior of Grandmother and Mother Transferred over each Generations, and The Grandmother's Nursing",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31, pp.65-74, 2006.

[27] Han SH, Kwon IS, Lee SY, "A Comparison of Korean Traditional Child-rearing Practices between Generations of Young Mothers and Grandmothers", *Journal of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12, No.1, pp.269-286, 2002.

[28] Lee YM, Yeun YR, Kim SJ, "Relation with Mothers of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for Infants Oral Health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3, pp.407-413,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3.407>

[29] Shim JE, Yoon JH, Kim KJ, Paik HY, "Association between picky eating behaviors and growth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46, No.5, pp.418-426, 2013.

[30] Pyun JS, Lee KH,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etary Habits of Mothers and Their Preschoolers and the Mother's Need for Nutritional Educatio for Preschoolers",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Vol.16, No.1, pp.62-76, 2010.

[31] Sim YS, Seo YM, " A Study on the Status of Grandparent to Caring for Infant or Toddler's Grandchild",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 No.2, pp.203-212, 1999.

[32] Lee CH, "A Study of the Actual Condition of Safety Recognition in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1, pp.27-43, 2018.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21.27>

[33] Park ES, Ahn CS, Kim EK, Sung KS, Won JW, "Toilet Training Status of Korean Toddlers and Their Mothers' Knowledge of Toilet Training", *Journal of the Korean Acad Child Health Nures*, Vol.14, No.3, pp.177-204, 2008.

강 영 실(Young-Sil Kang)

[정회원]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0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2018년 ~ 현재 : 경상대학교 건강과학 연구원

<관심분야>

노인간호,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

김 두 영(Doo-Young Kim)

[준회원]



- 2018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9년 9월 ~현재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과정중)
- 2018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외강강사

<관심분야>

노인간호, 아동간호